

【총장칼럼】

기독교인의 시간의식

권호덕 총장(Dr.theol)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매우 관심을 큼을 가르친다. 기독교가 이 두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인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데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대개 자기 생명의 근거나 출처를 모른다. 동시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방향기를 상실한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기 목숨을 쉽게 끊어버리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인간의 이런 중요한 질문은 시간관 내지 역사관은 인생관 내지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내가 어떤 시간관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관이 결정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시간의식은 유교의 과거 지형적인 시간관, 불교와 힌두교의 윤회적 시간관, 샤머니즘의 현세에 복 받으려는 시간관이다.

유교적 과거지향주의적인 시간관은 항상 옛것이 좋다는 사고방식에 나온 것이다. 즉 요순시대의 태평세월을 그리워하면서 후대의 왕들을 요순왕과 비교했던 것이다. 유교가 말하는 효도도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이런 데서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중요시되고 어른들 내지 스승의 가르침을 비판할 수 없다. 이런 데서는 학문이 발전할 수 없다. 윤회적 시간관은 한편으로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즉 해탈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결과 자기 구원에만 몰두하여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이루는 동시에 삶의 주 무대가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현실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구축한다. 샤머니즘의 기복신앙은 항상 현실의 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현실 중심적이다. 한국인들에게 미래 지향적이고 백년대계에 관심이 적고 현재 자기만이 영화를 누리려는 생각은 이런 시간관과 관계한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시간관을 우리에게 요구할까? 성경은 과거 사건을 무시하지 않는다. 아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구원사건이었다. 그렇다고 과거만 생각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동시에 미래의 시점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갈 것은 가르친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자인 메시아가 강림하는 날을 고대하며 살았다. 신약성경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수렴하고 있다. 동시에 현재의 삶을 매우 충성스럽게 살아갈 것을 가르친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되돌아보는 일과 동시에 미래의 한 시점으로 향하는 사고방식 사이에 생긴 현재의 영적인 긴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의 이런 시간관을 생각할 때 순장교단 성도들은 출애굽 사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흥남부두 철수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소규모였지만 지도자 목사 한 분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탈출한 사건은 기념할 만한 사건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 당시에 일하신 성령의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동시에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의 청교도적 목회철학이나 신앙정신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 사건에만 매달리게 되면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미래를 향한 생산적인 과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곡된 보수주의신학의 결점은 항상 과거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동시에 순장교단 성도들은 미래를 향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는 과업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소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명감이 있는지,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명감과 비전이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동시에 최후의 심판 내지 계산할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겐 몇 달란트가 맡겨졌을까? 우리 교단에게는 몇 달란트가 맡겨졌을까? 오늘의 교단 현실을 바라볼 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왜 일일까?



레위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준다. 레위는 5대 제사, 제사장의 위임식, 절기에 관한 규정들을 통하여 어떻게, 누가, 언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제시한 성막의 설명서이다.

레위기(Leviticus)란 이름은 “칠십인역”(LXX)과 “벌게이트”(Vulgate)의 명칭을 따른다. 칠십인역은 “레위인들에게 속한”이란 뜻을 지닌 “레비티콘”(Levitikon)을, 그 후에 벌게이트도 칠십인역을 따라서 “레비티쿠스”(Leviticus)란 이름을 붙인다. 한편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습대로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 “와이크라”(wayyiqra’, And he called)를 레위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레위가 출애굽기의 사상을 이어받지만, 하나의 독립된 단위를 구성하는 책이란 사실을 의미한다.

레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통하여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 히브리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히 7:11).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에 기록한 새 언약의 그림자를 발전시켜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이고(히 4:14-16),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의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레위의 영적 메시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렵기도 하다. 레위는 음식물, 제사장의 정화, 제사 제도를 위한 규정들,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보내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등 다양한 이야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레위가 강조하는 세 가지 메시지를 요약하면, “거룩함”(holiness), 희생제물(sacrifice), 속죄(atonement)이다.

첫째, 레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거룩함”(holiness)이다. “거룩함”이란 어원적으로 구별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의 기본 조건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구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요구한다.

둘째, 레위의 두 번째 메시지는 희생제물(sacrifice)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한 평생 제사와 직결되어 있다. 원래 제사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이다. 그러나 피의 제사란 단순한 선물의 차원을 넘어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 17:11). 레위의 희생제물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의미를 깨우쳐준다.

셋째, 레위의 세 번째 메시지는 속죄(atonement)이다(레 16장).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소, 즉 시은좌(mercy seat)에 자신의 피를 뿌리면서 “단번에”(Once for All)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무인지경으로 내쫓는 의식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다. 레위가 없다면, 그 누구도 이처럼 강력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임일빈 목사(한천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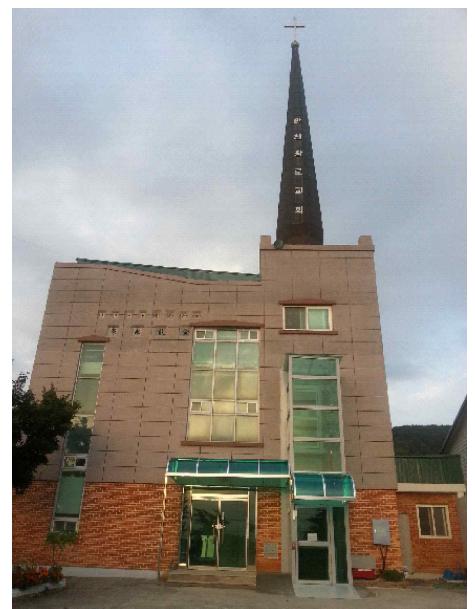
한천교회는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한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엔 논과 하우스만 보이는 그런 전형적인 농촌교회입니다. 2011년 초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15여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한 여 성도님이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성도님 가정에서 특수작물인 멜론을 심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우스로 심방을 갔습니다. 심은 지 얼마 안 된 모종을 보며 이 하우스를 통해 성도님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심방을 다녀온 2주일 후부터 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마로 하우스에 있는 멜론 식물의 줄기들이 많은 비를 먹어서 썩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기에 마음이 너무 아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런 환경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찌 합니까? 주님께서 하우스에 기적을 베푸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그분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우스에 있는 멜론들은 대부분 썩어 버렸고 조금 살아남은 멜론마저도 판매가치가 높지 않은 것들 뿐 이였습니다. 처음엔 하우스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도 그분들의 신앙생활은 계속되었고 집사의 직분을 받아 지금까지 한천교회의 제직으로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우스가 아닌 그 가정에 “그렇기 때문에”의 신앙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게 하신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한천교회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농촌과 농촌교회들 같이 노년에 계신 분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60대의 어르신들이 교회 내에서 젊은 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식사 준비나 청소조차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 에서 7~80대의 권사님 집사님들까지도 교회 일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시고 헌신하여 주셨기에 지금까지 한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올수 있었습니다. 1년의 수고로 거둬들인 귀한 쌀과 김장으로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을 섬기는 모습, 육신의 약함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시지만 과거보다 현재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며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믿음의 후배로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한천교회는 하루하루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감사하게도 우리 한천교회에는 매 년 마다 새 가족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농촌교회 목사이지만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고 있는 이 한천교회를 사랑합니다. 저의 동역자로서 협력자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장로님들과 젊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 곳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한천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준교수(Dr.theol)

욥기의 배경은 우스(Uz)라 불리우는 동쪽 땅이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예돔 방향 남동쪽 요르단 부근이나 북동쪽 요르단인 하란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역사적 사실 보다 신학적 의도와 가르침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실 ‘우스(우즈)’라는 이름은 발음상 히브리어로 ‘충고하다’라는 뜻의 ‘아즈’, ‘충고’ 혹은 ‘계획’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예짜’를 연상케 한다. 당시 욥기를 읽고 들었을 1차 청중들에게 욥기의 배경이 ‘우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지혜서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 혹은 삶에 대한 충고를 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어디 있는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욥의 처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요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였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탄원시에서 고난 받는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열망했던 것이다. 욥기의 배경인 ‘우스’와 주인공의 이름인 ‘욥’은 앞으로 펼쳐질 욥기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즉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분은 과연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러한 신학적 기대를 갖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욥기를 읽어야 할 것이다.

배경과 주인공의 이름에 대한 소개 이후에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준다. 서언(1-2장)에서는 욥을 모범적인 경건자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1장 1절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잠 2:21; 28:10; 시 37:37),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잠 3:7)로 묘사된다. 구약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에는 그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며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1절에서 두 개의 단어씩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이러한 표현은 욥이 종교적으로, 사회 윤리적으로,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 모두에서 거룩하게 생활하였음을 의미한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일치하는 자였다. 시편 37편 37절에서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 즉 샬롬이 약속되어 있다. 샬롬은 종교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거룩성의 상태만이 아니라, 이러한 거룩성이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화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영적인 샬롬의 상태가 일상에서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2절로 이어지는 욥의 자손과 재산의 축복에 대한 묘사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였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은 신앙인의 정직함과 경건함의 당연한 결과였다. 욥은 자신의 현세의 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그러나 1장 6절에서 사탄은 욥의 이러한 신앙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욥은 5절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한 집의 가장으로서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자였다. 그는 자기 자신만의 거룩성이 아니라 한 가족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5절, “성결케 하되”). 그는 자식들의 행동과 삶을 관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욥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욥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필자를 포함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의 모범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온전하게 거룩성을 유지하며,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거룩성을 살피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시간에는 신학에 있어서 신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론^{Gotteslehre}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말로 신학이라고 번역되는 희랍어 ‘떼올로기아’^{ἑολογία}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의 ‘떼오스’^{θεός}와 ‘말’ 내지는 ‘말씀’이라는 뜻의 ‘로고스’^{λογος}의 합성어입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데, 고대의 교부들은 이 떼올로기아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 내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을 ‘신학하다’라는 의미의 희랍어 동사 떼올로게인^{θεολογέ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신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에 있어서 크고 중심 되는 주제는 ‘하나님’이고, 그 외의 나머지는 부차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써,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시작되고, 진행되며 끝납니다.

이에 관하여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는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통찰했습니다.

교의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까닭은,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 피조물을 취급하는 다른 논제들에서도 교의학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관계에서 피조물을 관찰하는데, 이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롬 11, 36)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 2권, 27].

그러므로 바빙크가 예리하게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교의학 전체의 유일한 교리이자 독점적인 교리"입니다(바빙크, 같은 책, 27).

하여 교의학에서 취급하는 그 외의 교리들, 즉 세상, 인간, 구원, 교회, 종말에 관한 교리들은 단 하나의 중심 교리인 하나님에 관한 교리, 즉 ‘신지식’^{cognitio Dei}에 대한 해설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바빙크는 보았습니다(바빙크, 같은 책, 27).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고려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래 부속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교의학이 숙고하고 기술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이며, 오로지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와 재창조, 자연과 은혜, 세상과 교회에 나타나 있다. 교의학이 반드시 드러내 보여주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뿐이다.**"(바빙크, 같은 책, 28).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학의 유일한 과제이며 유일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고독하게 독존하는 전제 군주적인 단일신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로 존재하시며 상호간에 사랑의 교류와 교제와 소통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이신 분입니다. 하여 삼위^{tres personae}가 하나^{unitas}이신 하나님이 우리 신학의 유일한 주제입니다.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에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아니 하셨더라면, 기독교신학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신학에서 신론(삼위일체론)의 중요성이 명백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이는 신학이 우리가 지향하는 신학이요 우리가 지향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신학)과 삶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폴 히버트(Paul Hiebert)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 “복음은 인간의 문화로부터 구분되어야 함과 동시에 반드시 문화 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은 세상 문화에 대해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그의 주장은 선교에 있어서 상황화(Contextualization)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만약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적 상황이 복음 진리를 왜곡하는 본말전도의 현상이 선교지에서 일어난다면, 한 문화권에서 타문화권으로 복음이 증거 될 때 기독교의 혼합주의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평신도와 상황화 선교」의 주제를 살핌에 있어, 우선적으로 평신도 선교사의 역사적 배경을 살핀 후 ‘상황화 선교’에 관한 여러 제반적인 선교학적 이슈를 고찰하고자 한다.

‘평신도’의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대략 주후 3 세기경으로 볼 수 있다.¹⁾ 로마제국 당시 기독교가 공인된 후 교회는 가파른 성장과 함께 폭발적인 팽창이 일어났다. 이런 기독교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체계적인 제도화를 가지고 왔는데, 그 제도화 중의 하나는 교회 안에 성직을 전업으로 일삼는 성직자들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성직자 외 성도들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호칭해야 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가 A.D. 200년경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T.C. Cyprianus)은 성직자가 아닌 그들을 ‘평신도’라고 부름으로써 교회 안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전파를 위해 성직자를 사용하셨다. 그러나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무명의 평신도를 선교사로서 함께 사용하셨다. 문제는 교회의 제도화가 성직자의 권한과 사역을 눈에 띌 정도로 강조하고 입지를 강화한 반면, 평신도의 활동과 역할은 확연히 축소시킴으로써 평신도가 설 자리를 좁혔는데 있다. 그래서인지 하비 콘은 평신도를 가리켜 “교회 안에 잊혀진 존재”라고 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 상 평신도의 선교운동은 그대로 잊혀지지 않았다.²⁾ 19세기에 들어 평신도에 의한 선교운동은 놀라울 정도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런 이유로 라투렛(K.S. Latrette)은 19세기를 가리켜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일컫는다. 특히 19세기 말(末) 서구지역에서 일어난 학생신앙운동(S.V.M)과 대학생 기도모임 및 선교운동 등은 수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선교사역을 감당하는데 커다란 동력이 되었다. 개신교의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도 19세기의 평신도 선교사였음을 잊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선교운동에 따라 한국에도 1884년에 평신도 신분이었던 호렌스 알렌(Horace N. Allen) 박사가 선교사역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는 전통적인 성직자 신분의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사역을 했다. 이후 ‘평신도 선교사’는 1980년대에 이르러 ‘텐트메이커’(Tentmaker)로 불리거나 ‘자비량 선교사’(Self-Supporting Missionary) 등의 호칭으로 최근까지 불리기 시작했다.³⁾

- 1) ‘평신도’의 뜻을 지닌 헬라어 ‘라이코스’(Laikos)는 신약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평신도의 뜻을 지닌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백성’의 뜻을 지닌 ‘라오스’(Laos)이다. 라오스는 헬레니즘 시대에 ‘시민’이라는 의미를 지녔고,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대조되는 ‘택한 이스라엘’을 뜻했다(행4:10). 그리고 이후에는 이방인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무튼 평신도를 의미하는 표현은 구약(창 12:1-3; 출 19:5-6; 사 43:20-21)과 신약(엡 4:11-12; 벧전 2:9-10)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
- 2) 초대교회 시대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 ‘흩어져 복음을 두루 전한 자들’은 대부분 평신도 선교사였다. 그 후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평신도의 선교사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평신도 선교사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첫째, 동방교회의 경우 A.D. 339~448년까지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수십만 명의 순교자를 내었을 때도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 했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평신도였다. 둘째, 13세기 후반 마르코 폴로(Marco Polo)의 중국여행에서도 그가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셋째, 콜럼버스(Columbus)도 인도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항로개발과 탐험 길에 열정을 쏟았다는 연구가 최근에도 종종 발표되고 있다. 넷째, 가톨릭 선교회인 17세기 예수회의 마태오리치 선교회 구성원을 보면, 수학자나 천문학자, 지도 제작자 등의 대부분 평신도 선교사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동인도 회사의 사목들도 평신도였다. 17세기 초반에 동인도 회사에 재직한 토마스 경(Sir. Thomas Rowe)이나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사목인 헨리 마틴(Rev. Henry Maartyn) 등도 복음을 위해 헌신한 평신도 선교사였다.
- 3) 이런 용어 외에 일슨 주니어(J.C. Wilson, Jr)는 사도행전 18:3절 텐트메이킹(Tentmaking)에서 ‘평신도 선교사’에 해당하는 전문적 용어를 열거한 바 있다. 가령, 비전문적 선교사들(Non-Professional Missionaries), 평신도 사도(The Lay Apostolate), 평신도 목회자(Lay Pastor), 자비량 증인(Self-Supporting Witness), 자비량 선교사(Self-Supporting Missionary), 평신도 선교사들(Lay Missionaries), 직분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의 대사들(Ambassadors for Christ without Portfolio), 그리고 비공식적 선교사들(Unofficial Missionaries) 등이다. 이런 용어들은 다소 내용상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비(非) 성직자이면서 전문적 직업을 소유한 선교사”란 점이다.



한국이 선교 받은 지 120년 만에 제2의 선교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1980년대 초(初) 한국교회의 단기선교는 주로 파송교회 목회자들의 선교지 순방을 위한 목회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였다. 그 후 1990년대에 대학생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단기선교가 성행하다가 나중엔 지역교회와 함께 평신도와 청년들이 단기선교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에서 단기선교에 관한 신학적 고찰은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지역교회는 업적 중심의 선교를 지향하고, 선교사는 특정국가와 밀집된 도시에 파송되었다. 게다가 선교사의 훈련부족, 영성부족, 타문화에 대한 무지 등은 선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점에서 논자는 “단기선교에 대한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대한연구”라는 본 논문을 통해 단기선교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따라서 논자는 한국교회 단기선교가 올바른 방향설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도록 다음 몇 가지의 쟁점들을 본고에서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교회 단기선교는 교회가 단기선교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선교는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교회는 선교훈련 전문단체를 통해서 단기 사역자를 발굴해 교단과 선교단체를 통하여 선교 전략에 협력해야 한다.

셋째, 단기선교 참여자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기선교 사역 기간 중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장기선교사와 팀장의 인도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솔자 리더십이 중요하며, 이 리더 발굴에 있어서 교단과 선교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현지 장기선교사들이 단기선교를 이해하고 장단기 협력선교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언어와 문화적 제한을 가진 단기 선교 팀이나 단기사역자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중장기적인 선교 프로젝트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장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지 교회와의 전략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선교여행이라고 할지라도 표면적인 선교, 단순한 선교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사역을 하기 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선교 사역에 동참하여 ‘현지 교회와의 전략적인 연계’속에서 선교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기선교의 재정, 사역, 운영의 투명성과 적합성을 평가할 만한 기준과 평가 시스템 마련되어 단기선교를 통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문제가 발생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 단기선교는 사람중심, 교회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단기선교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논자는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소망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했다. 개인적으로 금번 교단 신학교인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청구 논문으로 “단기선교에 대한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대한연구”을 통해 현 단기선교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극복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연구를 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앞으로 박사논문에서는 단기선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 및 제반적 현상뿐 아니라 선교신학적 측면에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아더 피어슨(Arthur T. Pierson)은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의 주제로 ‘성령 행전’을 제안한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첫 문장은 1장 1-2절로서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의 주제를 명시함으로써 사도행전의 주제를 암시한다. 사도행전의 첫 문장에 요약된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승천되기 이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것들(~에 관하여, 전치사 $\pi\epsilon\rho\iota$ 빼리)”이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누가복음은 의로운 제사장 부부의 자녀 없는 수치를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첫 단락을 마친다(눅 1:25). 또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신 말씀을 사역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눅 4:14-15). 마침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종말의 완전한 선지자로서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으로 마친다(눅 24:19). 그러므로 누가복음이 승천 이전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지상사역의 일과 말씀에 관한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승천 이후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 행하시며 가르치신 모든 일과 말씀에 관한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가르치심이 행하심에 의해 확증되고, 행하심은 가르치심의 효력을 구체화한다.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각각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으로 구별한다.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 서문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에 근거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적 통일성을 확인시키는가? 그 목적은 사도행전 1장 2절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승천의 행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행 1:2).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것들을 계승받을 사역의 상속자들이다. 승천은 하늘궁정과 하늘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천상에서 하나님나라 사역을 계속하심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의 참 성전에 거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써 사역의 계승을 이루실 것이다(행 1:8; 2장). 구약은 사역 계승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모세가 유언으로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명령한 사건이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사건을 회고케 한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고난 받은 사건들(눅 22-23장)과 그 후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신 사건(눅 24장)을 사역 위임의 결정적 요소로 제시한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사십 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에 관하여, 전치사 $\pi\epsilon\rho\iota$ 빼리)을 말씀하셨다.

이상에서 확인하듯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서문에서 누가복음의 주제를 명시하고 사도행전의 주제를 암시하기 위해 언어적 장치 전치사 $\pi\epsilon\rho\iota$ (빼리, ~에 대하여)를 두 번 사용하였다. 첫째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말씀들로 요약되는 사도행전 1장 1절(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것들에 관하여 $\pi\epsilon\rho\iota$ πάντων, ὃ θεόφιλε, ὧν ἤρξατο ὁ Ἰησοῦς ποιεῖν τε καὶ διδάσκειν)과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로 요약되는 1장 3절(하나님 나라에 관한 $\pi\epsilon\rho\iota$ τῆς βασιλείας τοῦ θεοῦ)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통일성에 대한 찬반토론이 최근까지 계속되었고, 찬성하는 학자들도 누가-행전의 통일된 주제에 관해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마샬(Marshall)은 ‘하나님의 나라’ 단어군과 ‘구원’ 단어군에 대한 통계적 자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 단어가 누가-행전의 주제라는 리니(A.R.C. Leaney)에 반대하면서 ‘구원’ 단어가 누가가 독특하게 강조하는 누가신학의 열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사도행전의 서문에서 ‘구원’은 언급되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명시된다. 비록 그 단어가 사도행전에 겨우 8회 밖에 나타나지 않지만(행 1:3,6; 8:12; 14:22; 19:8; 20:25; 28:23, 31), 서두(행 1:3,6)와 결미(행 28:23, 31)에 각각 2회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의 주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행전을 읽을 때 다른 모든 단어들은 저자가 명시한 주제적 단어(‘하나님의 나라’, $h\acute{\epsilon}$ basileia tou/ qeou/)와 밀접한 의미적 관계로 재정의할 때 우리는 주제의 일관성(coherence)뿐만 아니라 저자의 의도성(intentionality)과 상호본문성(intertextuality) 등 텍스트의 다양한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두 번째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행 1:6)과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조직신학] 개혁신앙의 기초: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해설서론(1)



김은수 교수(Ph.D)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구원 진리의 유일성과 독특성이 부정되는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다양한 현대신학의 사조들이 난무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가르침과 객관적 진리의 유일성이 부정되는 포스트모던(postmodern) 사상, 그리고 세속화된 문화의 격랑과 도전들 속에서 위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참된 신앙의 규범이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의 암흑기"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성경의 여러 시대들 가운데 특별히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올바른 신앙의 기준과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삿 17:6; 21:25) 신앙의 무정부상태가 되었다는 점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오직 그곳에는 어지러운 혼란과 어두운 그림자만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상황이며, 이것은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 다른 한편, 넓게는 개신교 전체, 좁게는 보수적 장로교회가 상대적으로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또 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앙과 세속적인 번영의 신학이 번성하고, 각종 윤리적인 문제와 기득권 다툼 및 물질적 상업주의로 퇴락함으로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개혁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그 영향력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그동안 교회의 외적성장에만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서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과 신앙과 경건의 훈련,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 적용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틈을 타서 여러 가지 이단사설들과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심각하게 도전해오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말하는 교리교육이라는 교회의 고유한 사명과 전통이 사라진 “교리교육의 실종”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단순화일까? 아마도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존 칼빈(John Calvin)을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sola gratia) 주어지는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의 참된 성경적 진리를 재발견하고, 이것을 재확립함으로서 잘못된 중세신학과 부패한 교회를 혁파하고 개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역사는 교회를 바로 세움에 있어 올바른 신학의 정립과 교리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며, 교회가 올바른 신앙고백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새롭게 재인식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신앙의 표준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신앙의 항목들에 대하여 ‘참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여 표현한 중요한 표준문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조”(신경, Creed) 혹은 “신앙고백서”(the Confession of Faith)라고 부른다. 이러한 문서들 가운데 세계의 모든 기독교회가 수납하는 초대교회 공의회 결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문서들을 특별히 “신조/신경”이라고 부르는데 반해,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각 교파들이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표명하기 위해 만든 것을 “신앙고백서”라고 부른다. 또한 이러한 공적인 신앙고백의 내용을 알기 쉽게 교육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곧 다양한 “교리문답서”(요리문답서, Catechism)들이다. 지금 우리 장로교회가 교리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7)인데, 이것은 고대 공교회 신조(사도신경,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 등)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계승하여 내용적으로 확장하고 풍성하게 발전시킨 것이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서”와 “소교리문답서”(The Westminster Larger & Short Catechism, 1647/1648)는 “신앙고백서”에서 표현된 교리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만든 문서들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하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그 가운데서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중심되는 항목들에 대한 ‘성경의 참된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개혁파 교회의 여러 중요한 교리적 표준문서들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The Heidelberg Catechism, 1563)도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공부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Soli Deo Gloria!*



김대진 교수(Ph.D)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차디찬 겨울도 이제 끝자락에 온 것 같다. 한 낮의 햇살은 지나간 추위를 잊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제 곧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게 될 것이고, 상막했던 들판은 서서히 초록의 색으로 옷을 갈아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여행에 대한 작은 소망들이 우리들의 가슴에도 피어오를 것이다. 무작정 떠나는 여행도 설레고 흥미롭지만 이왕 떠나는 여행이라면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내가 여행할 곳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그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역사”라는 여행을 시작할까 한다. 사실, 사람들에게 역사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로 기억될 뿐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역사를 지나간 시간들과 사람들의 기록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는 지나간 것도, 단순한 기록도 아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단지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역사는 마치 “거울”과 같다. 거울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역사도 그렇다. 역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역사를 대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 역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한다. 그러기에 역사의 여행은 흥미진진한 것이리라.

그런데 막상 여행을 떠나려니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여행하려는 “역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역사를 여행하다보면 보통의 관점(세상적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여행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의 역사”로 여행을 떠나려 한다.

김기홍 교수는 「이야기 교회사」라는 책에서 “마치 일반사가 역사귀라면 교회사는 나무줄기와 같다. 역사귀만 본다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 줄기들을 바로 보아야만 나무의 생김새를 알 수 있다. 역사의 줄기만 잡는다면 훨씬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역사로 여행을 떠나려는 이유이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로의 여행을 통해 일반 역사에서 얻을 수 없었던 의미와 가치, 이유와 목적을 찾아보려 한다. 왜냐하면, 일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전혀 상반되고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역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을 또한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일하신다. 그러나 일반 역사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실체는 영적인 것이다. 그림자를 넘어 실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의 눈”이다.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교회 역사로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깊은 곳에 소망하는 것은 오늘의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역사, 특별히 교회의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나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신앙을 가슴에 안고 온갖 고난과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결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한국 교회는 급성장이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다.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성장은 어느 때부터 정체되기 시작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아쉽게도 그냥 줄어드는데 그치지 않고 욱까지 먹고 있다. 최근 어느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기독교의 열정은 높지만 교회에 대한 호감은 타 종교에 비해서 가장 낮다고 한다.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한국 교회만큼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기독교 역사에서 찾기 어렵다. 일반 한국 교회에서 성경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 중세 수도원 수도자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양에 있어서 한국 교회에 말씀은 풍성하다. 그럼에도 말씀이 문제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역시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한국 교회에 만연한 은혜 중심 설교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기 보다는 설교를 듣는 청중의 감동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설교자는 정확한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청중에게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이다. 성경보다 감동이 우선시 되는 교회 현실은 설교자로 하여금 성경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기 보다는 청중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한다. 어느 목회자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웃어야 할지 진지하게 새겨들어야 할지 고민되는 대목이다.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벗어나기 싫다면 우리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은혜 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한 한국 교회에서 말씀이 살아나기는 힘들다. 말씀이 살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한국 교회에 감동보다 말씀을 원하신다. 때로는 설교 시간이 개그콘서트를 방불케 한다. 개그콘서트 방청객이 웃을 준비를 하고 웃음을 기다리듯이 예배당의 청중은 설교자가 감동을 주기를 기다린다. 새로운 감동을 잘 찾는 자는 성실하고 준비가 잘 된 설교자가 되었다. 이쯤 되자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예화를 찾는 것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설교학자도 생겼다. 출처도 없고 근거 없는 예화가 범람하는 이유가 다 있다.

감동 설교와 설교 표절은 무관하지 않다. 목회자의 설교 표절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느 기독교 언론에서 밝힌 통계조사에 의하면 설교 표절 경험이 있다고 답한 목회자의 비율이 믿기지 않은 숫자였다.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그 정도일지는 짐작 못하였다. 아마도 교인들보다 한국 교회 목회자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의미 없다는 것이다. 설교에 있어서 감동은 필요하다. 하지만 말씀 없는 감동은 개그콘서트와 다르지 않다.

말씀이 있으면 감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 목회자는 자신의 교인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데 전념하지 않는다. 이단을 경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스티커가 아니라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데 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주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이다. 감동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이다. 목회자는 주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평안으로 베들레헴에서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이곳 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저희들과 이곳 베들레헴 선교를 위해 여러모로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들레헴 선교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2014년은 특히 이곳 베들레헴 선교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2010년 센타 공사를 시작한 이후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올해 드디어 센타 내에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 하셨습니다. 보아스 뜰에 한국교회 이름으로 약 450평의 대지를 2007년도 구입을 하게 하시고, 정식으로 센타 건축 하게 하시고, 이번 성탄에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곳 이스라엘 한인들과 함께 감격스러운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동 이슬람권 선교는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현장에서 선교를 이루어 갈 선교의 교두보의 역할을 센타가 해야 합니다.

베들레헴 선교센타 건물 구성

저희 센타는 632평 규모로 지상 1층에 태권도장, 2층에 유치원(현재 거의 공사 마무리 중에 내년 9월 중 개원 준비), 한방 클리닉(현지에서 한방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센타에 본부를 두고 베들레헴 주변 마을들로 순회 치료도 하려 합니다. 한방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선교관(원룸 1, 방2개 아파트 2동). 3층에 150석 규모의 예배당 겸 다목적실(예배와 여러 한국 문화 공간). 어린이 도서관 겸 문화원, 원룸1. 방3개 아파트 1동. 4층에 선교관(원룸 9개, 방 3개 아파트 1동), 식당, 옥상(기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을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식 지붕으로 했습니다. 이는 이 건물이 한국 것임을 현지인들에게 보여 주고, 최근의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멋을 이들에게 보여 주는 동시에, 이 건물은 한국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는 건물로 하게 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언제 어떻게 상황들이 변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며 선교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으로 선교사로 이 땅에서 선교를 이루어가는 데, 한국은 저에게 큰 방패막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식 지붕으로 센타를 이곳 사람들에게 보여 줌으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선교에 선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교가 흔들림 없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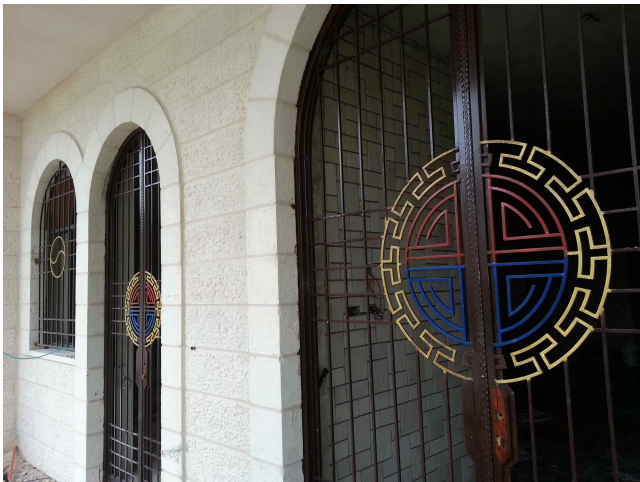


아직도 많은 공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태권도장과 4층의 선교관, 어린이 도서관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로 공사를 가능케 함은 이름도 빛도 없이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으로 함께 하신 귀한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도 주님 앞에 자원하는 분들의 헌신을 통해 마무리 되어, 이 센타를 통해 복음의 마지막 땅끝 선교를 이루는 터가 되기를 기도 합니다. 나아가 센타는 현지인들에게 한국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평화를 이루는 공간이 됨과 동시에, 한국교회를 섬기는 센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센타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선교관이 마무리 되면, 농어촌 목회자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이 땅을 순례할 수 있도록, 농어촌 목회자 순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젊은 청소년들을 훈련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살아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을 다윗이 양을 치며 미래를 준비했던 이곳 베들레헴에서 광야를 직접 걷고 느끼며, 주님 안에 자신의 비전과 꿈을 다시 정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광야 학교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 광야, 그렇기에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연단과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로 보내셔서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내 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신 곳이 광야입니다.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새로워 져야 한국교회에 희망과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센타에서 광야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말씀 안에 새로워져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루며, 한국 사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곳 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 공사가 마무리 되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센타, 생명을 살리는 센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장8절)

대한예수교 장로회(순장) 교단소식: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1. 교단 총회 개최 및 신임 임원 명단

본 교단 총회가 2014년 9월 22일(월)~23일(화)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안전교회에서 있었다. 금번 회기에서는 향후 신학교(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운영과 교단의 재정운영 및 미국 워싱턴 온마을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금번에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총회장: 권정희 목사(송덕교회)
- 부총회장: 김동민 목사(창대교회), 정영섭 장로(신원예담교회)
- 서 기: 김일수 목사(동신교회) - 회록서기: 이준호 목사(거자씨 교회)
- 회 계: 위용찬 장로(안전교회) - 부회계: 최명철 장로(성산교회)
- 시찰부장: 지태일 목사(새빛중앙교회) / 부부장: 최도섭 장로(동천교회)
- 선교부장: 손종필 목사(늘푸른교회) / 부부장: 손근수 목사(새소망교회) 부부장: 한규은 장로(창대교회)
- 고시부장: 서정환 목사(안전교회)
- 재단부장: 김일광 장로(창대교회) / 부부장: 최창수 장로(한빛전원교회)
- 재판국장: 윤정현 목사(해맑음교회)

2. 2014년 11월 3일(월)과 27일(목)에는 각각 후반기 장로고시를 위한 특강과 장로고시가 있었다. 고시결과 조완호(남부노회, 신원예담), 김 석(동부노회, 동천), 김인호(동부노회, 춘천), 장호식(동부노회, 영암), 한국현(동부노회, 춘천), 안수길(중부노회, 대천), 이권재(중부노회, 대천)가 고시에 합격하였다.

3. 2014년 11월 4일(화)에는 교단의 화합과 수양관 매각자금의 사용, 그리고 신학교 운영을 비롯한 다른 교단과의 연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교단 산하 지교회의 담임 교역자들과 장로들의 연석회의가 동천교회에서 있었다.

4. 2015년 1월 5일(월)~6일(화) 양일간에 걸쳐 본 교단의 교육부 주관으로 천 환 목사(고려측 총회장, 인천 예일교회)를 모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교단 제직 부흥회가 있었다. 아울러 1월 7일(수)~8일(목) 양일 간은 해맑음 교회(윤정현 목사 시무)에서 남주 지역 교회들을 위해 천 환 목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이어갔다.

5. 2015년 1월 12일(월)~14일(수) 2박 3일 동안 무봉산 청소년 수련회(경기도 평택시 소재)에서 "오! 예수 그리스도(4복음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본 교단 지교회 학생부의 임원들과 담임 교역자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0회 기독교학생연수회(S.F.C.)가 있었으며, 약 7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강사로는 이재성 목사(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신학, 신원예담교회)와 김대진 목사(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 오창은 목사(인천 대흥교회), 최승규 강도사(동신교회)가 4복음서와 저녁 부흥회를 맡아 섬기셨다.

6. 2015년 1월 22일(목)~24일(토) 2박 3일 동안 크리스찬 하우스(경기도 연천 소재)에서 본 교단 연합청년면려회에서 김대진 목사(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를 모시고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약 50여 명의 청년들이 동계 신앙수련회를 열었다.

7. 향후 본 교단에서는 2015년 2월 28일(토)에 이병준 목사(참 행복교육원 원장)를 모시고 교사 세미나를, 그리고 2015년 6월 20일(토)과 21일(주일)에는 각각 동천교회(전홍현 목사, 서울 신길동 소재)와 해맑음교회(윤정현 목사, 대전 소재)에서 여름 교사 강습회가, 2015년 8월 22일(토)에는 신원예담교회에서 전국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고사 및 찬양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2015년 8월 24일(월)~26일(수)에는 본 교단에 속한 전국 교역자 수련회가 있을 예정이다.

8. 현재 본 교단은 재건 총회와 고려 총회와 더불어 교단 연합에 대한 논의를 다방면으로 지속하고 있다.

9. 2015년 1월 13일(화) 좋은 교회의 교회이전 입당 감사예배와 이준순 목사의 위임예식이 있었다.

【학교발전기금 및 장학금 현황】 (2014.03.01 ~ 2015.01.31)

☞ 학교발전기금

겨자씨교회	250,000
동천교회	8,130,000
신원예담교회	2,859,000
춘천교회	1,100,000
한천교회	1,200,000
연합전도회	4,000,000
권호덕	5,000,000
김대진	100,000
문흥기	300,000
이세진	1,000,000
채진자	3,840,000
조항현	2,000,000
(주)듀드키즈(외부기부자)	10,000,000
합계	39,779,000

☞ 학교장학금

루디아장학회	10,000,000
전국장로회	2,000,000
진잠제일교회	300,000
춘천교회	640,000
태술장학회	1,700,000
김재순	600,000
노알수	200,000
박영심	4,000,000
박지호	1,000,000
심은혜	1,100,000
양영자	300,000
여미숙	500,000
유현희	300,000
윤숙자	100,000
윤정현	300,000
이석경	1,100,000
이세진	2,000,000
이주철	5,000,000
전영희	300,000
전재덕	1,200,000
정숙희	350,000
조항현	200,000
최근현	300,000
최한이	300,000
홍선혜	300,000
황미경	300,000
합계	34,390,000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소개】

구약신학

임철일 교수	총신대학교대학원(Ph.D)
노알수 교수	Faith Theological Seminary(D.R.E) Cohen Theological Seminary(Th.D)
박영준 교수	Heidelberg University(Dr.theol)
우상혁 교수	Strasbourg University(Dr.theol)

신약신학

송무현 교수	Potchestroomse University(Th.D)
장석조 교수	University of Athens(Ph.D)
이재성 교수	평택대학교대학원(Ph.D)
이필찬 교수	University of St Andrews(Ph.D)

조직신학

권호덕 교수	Heidelberg University(Dr.theol)
지태일 교수	칼빈대학교대학원(Ph.D)
김은수 교수	Trinity University(Ph.D)
이동영 교수	Bochum University(Dr.theol)

역사신학

오창윤 교수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Ph.D)
김대진 교수	평택대학교대학원(Ph.D)

실천신학

이정현 교수	University of Pretoria(Ph.D)
이홍찬 교수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Ph.D)

선교신학

배춘섭 교수	University of Pretoria(Ph.D)
이동현 교수	총신대학교대학원(Ph.D)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2015년 신·편입생 모집】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Seoul Biblical Graduate School of Theology)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개혁주의 신학을 교육이념으로 삼아, 복음으로 이 시대를 선도할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고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는 복음을 통해 영적 진리를 분별하는 지성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음에 빛진 자, 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명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거룩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설립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성경대학원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교과과정(curriculu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 목회학석사(M.Div) 과정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6학기 과정).

II. 문학석사(M.A) 과정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4학기 과정).

모집학과 - 성경학, 선교학, 기독교 상담학.

III. 신학석사(Th.M) 과정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목회학석사(M.Div) 학위소지자(4학기 과정).

IV. 철학박사(Ph.D) 과정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목회학석사(M.Div) 및 신학석사 학위소지자(Th.M)는 성경신학(구약/신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및 실천신학에 지원 가능. 그러나 기독교교육학과 기독교상담학 및 선교학 전공자는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목회학석사(M.Div) 및 동일전공 석사(M.A) 학위자도 지원 가능.

V. 평생교육원 과정

지원자격 - 국내외 학위 및 연령과 관계없이 기독교 신학과 연관된 다양한 교과를 배우고자 하는 자.

교과과정 - 「기독교상담」「평신도 조직신학」「목회자 주석/설교」「교회성가대 지휘/반주」

☎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입학문의: 02) 845-7711



👉 오시는 길 👈

